

무주군, 과수품질 지키기 총력

돌발해충 방제 위해 8300여만원 투입 약제 지원·과수화상병 예찰 강화

무주군이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방제에 8,300여만 원을 투입해 희망 농가(사과, 배, 블루베리, 복숭아, 아로니아, 오미자, 자두, 체리, 대추 등)에 약제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로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받는다.

무주군에 따르면 8~9월 산란기 이전 방제를 마친다는 계획으로, 발생 빈도를 낮추기 위해 5월 하순까지는 981ha, 1,440명을 대상으로 1차 방제를 마쳤다.

돌발해충은 산란의 활엽수와 배, 사과, 포도, 콩 같은 농작물을 흡즙하거나 그을음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이종철 과장은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산란기 이전 방제가 정말 중요하다"며 "방제 지원을 통해 병해충 발생 우려를 낮추는 동시에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발생을 막기 위해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760ha)를 대상으로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과수 화상병 종합상황실(농가 신고제)을 운영 중으로 ▲예찰과 방제, 현장기술 지원부터 ▲의심농가 발생 시 조치 및 사후관리, 그리고 ▲화상병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과 준수사항 등을 공유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친환경기술팀 황재창 팀장은 "과수 화상병은 사과와 배나무의 잎과 꽃, 과일 등 물론, 가지와 줄기까지 모두 붙어 그을린 것처럼 검게 변하면서 말라 죽는 병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과수원 청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정지정점(가지치기) 작업 시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농기구(전정가위, 사다리 등)와 장갑, 모자 등의 농작업 도구는 차아염소산나트륨(관매용 락스 4~20배 희석) 또는 70% 이상의 알코올로 소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화상병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팀으로 신고(320-2856~2858)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은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타의 모범이 된 친절공무원을 선발했다. (왼쪽부터 정원필, 양지민, 장문정, 이희정, 신철주)

장수군 친절 으뜸직원 선정

정원필·장문정·양지민·신철주·이희정 5명

장수군은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타의 모범이 된 친절공무원을 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친절공무원은 주민복지실 정원필 통합조사팀원, 재무과 장문정 재산관리팀원, 안전재난과 양지민 안전총괄팀원, 환경위생과 신철주 환경지도팀원, 농축산유통과 이희정 식품진흥팀원이다.

주민복지실 정원필 통합조사팀원은 복지혜택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방법을 모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의 태도로 친절히 응대하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재무과 재산관리팀원 장문정 주무관은 적극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직무수행으로 민원인에게 친절한 응대, 항상 밝은 웃음과 열정적인 태도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행정을 실현,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긍정적인 자세와 친절한 태도 등으로 모범이 돼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안전재난과 양지민 안전총괄팀원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방역수칙 홍보 및 점검, 자가격리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민원인에게 맞춤 행정을 실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신규 가입 홍보,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취약 시설 안전점검 실시시 공감, 소통행정을

실현으로 솔선수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위생과 신철주 환경지도팀원은 코로나19로 모두 다 힘든시기에 자가 격리자를 위해 매일 전화 확인뿐만 아니라, 다른 불편한 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어르신들의 간식과 말반찬을 손수 전달해 민원인에게 역지사지의 마음과 친절한 자세로 임하는 등 성실하고 친절한 태도로 업무를 처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축산유통과 이희정 식품진흥팀원은 업무추진 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빠른 처리와 미흡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점검, 부족한 점들을 미리 알려주는 등 꼼꼼한 사업 진행, 소통과 공감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등 친절행정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수군은 균형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친절 으뜸직원을 각 5명씩 선발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 친절 공무원들은 부서추천 9명, 외부추천(홈페이지 등) 16명으로 총 25명이 추천된 가운데 직원투표(1차)에서 10명을 선발 후, 공직심사위원회(2차)를 통해 최종 5명이 선정됐다. 친절 으뜸직원으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표창 및 다음연도 글로벌 해외연수의 특전이 주어진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의회,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개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 진행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본회의 의안 상정에 앞서 정옥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진로개발을 위한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군 의회에는 이어 7일과 8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열고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세

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광수 의장은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효과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에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방안 마련해야"

진안군의회 정옥주 의원, 5분 자유발언서 다양한 정책 발굴·지원 촉구

진안군의회 정옥주 의원(가 선거구)은 7일 제27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진로개발을 위한 청

소년 드림카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복지의 홍수 속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

흡한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이자 우리군의 자식과 같은 존재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김제시의 경우 만 16세에서 만 18세 청소년에게 월 5만원의 청소년 드림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 고성군에서는 5~7만원의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보편적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옥주 의원은 "이제라도 보편적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시행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회 정옥주 의원은 제27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진로개발을 위한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 소식통

무주군,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70만 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19명)와 일반택시 기사(17명)를 대상으로 지원. 지난 2월 1일 이전 입사해 6월 2일 현재 계속 근무한 자다.

단, 제4차 재난지원금 등 기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군은 전세버스와 일반택시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출감소를 확인,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할 자료를 참고해 대상자를 확정할 바 있다.

군은 6월 중 이들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에게 힘을 실어 줄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가족경영협약 농가교육 신청·접수

농업의 가족 경영이 일반화되면서 '가족경영협약'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있다. 가족끼리 농업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폭을 사전 줄이고 함께 협력하지는 취지로 가족경영협약을 맺어 농가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다.

무주군이 이달 24일까지 2021년도 가족경영협약 을 위한 농가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와 부모·자녀, 그리고 자녀 부부 등 6명이다.

군이 추천한 대상자들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농촌진흥청과 (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가족경영 협약 농가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가족경영협약의 필요성을 비롯한 의사결정, 경영참여, 재산분배 평가, 농업경영 참여 성과 돌아보기, 가족별 가족경영협약서 시안 작성, 협약서 작성 및 실천결의 다지기 등으로 진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체리 농업인 연구회, 16일 품평회 개최

진안군은 7일 시범사업으로 조성한 체리 열매 수확에 한창이라고 밝혔다.

군은 수입산 체리 소비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 과수 발굴을 하던 중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하우스 체리 지역적응 실증재배를 실시했다.

현재 관내 체리농가는 7농가 2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수확량은 2

톤가량으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진안산 체리의 홍보를 위해 오는 16일 '진안고원 체리 농업인 연구회'는 진안체리원에서 진안산 체리 품평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군수, 의장, 조합장 등을 초청해 진안에서 생산한 15가지 체리 품종의 무료시식과 품종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